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2016년 6월 13일 월요일 (음 5월 9일) 제157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혁신도시 교육·정주여건 개선 시급”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전북지역 이전 공공기관 가족동반 이주 22% 불과

이전기관-대학간 협력 강화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해야

전북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5면>

교육·정주여건이 미흡하다는 것이 이주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분석한 결과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로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당초 계획대비 추진실적과 이에 따른 사업 효과와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됐다.

▲가족동반 이주율 전국 평균치 밑돌아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계획대비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은 22.1%에 머물렀다. 계획대비 이주율 74.3%에 그친 결과다.

전북 이전 공공기관 중 가족동반 이주율이 가장 저조한 기관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불과 9%에 그쳤다.

이전이 저조한 사유는 전북의 생활환경·교육복지 여건이 미흡해 대신 이주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가족동반 이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개별이전지역(40.3%)이었으며, 부



“질문에 답변해드립니다” 10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송하진도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산(38.6%), 제주(36.7%) 순으로 높았다.

반면 충북(17.5%), 강원(18.8%) 순으로 이주율이 낮았다.

▲지역경제 활성화·이전지역인재 채용엔 긍정적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지역인재 채용과 지방세 수입 증가 등 지역 활성화에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이전 공공기관의 최근 2년간 이전지역인재 채용 추이를 보면, 2014년 73명(10.8%)에서 2015년 명(14.1%)로 3.3%포인트 증가했다.

이전지역인재 채용이 늘어난 것은 지역할당제·채용목표제·가산점부여제 등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를

도입한 기관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부산(27.0%)이 가장 높았으며, 경남(18.8%), 대구(16.5%), 광주전남(15.5%)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세종(6.2%), 강원(9.2%), 울산(9.8%) 등은 채용비중이 낮았다.

이들 기관의 채용이 저조한 사유는 해당지역 대학 졸업자 지원 및 관련 분야 적격자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북 이전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인재 채용률이 4.2%에 불과했다.

도내 대학교 숫자가 타 지역에 비해 적고 공사 업무관련 전공학과가 적다는 이유다.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도 증가했다.

전북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은 2013년 75억원에서 2014년 500억원, 2015년 298억원으로 증가했다.

경남으로 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난해 지방세 납세금액은 110억 원으로 전국혁신도시 기관 별 납세 실적부분에서 상위 4번째로 높았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교육·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이 미흡해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과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역인재 채용은 증가추세에 있지만 공공기관-대학간 교육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120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완료

120개 모든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30개 공기업, 90개 준정부기관 모두에서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발표 후 3월까지 기성산업진흥원 등 2개만 확대 도입을 결정했지만 4월에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등 45개 기관이 이행을 완료했다.

5월에 과반수 이상인 67개 기관이, 6월엔 나머지 6개 기관이 도입을 확정했다.

다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확대는 무효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계 “노조 동의없인 무효”... 향후 논란 예상

국회입법조사처도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와의 질의 응답에서 “공공기관 이사회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런 결의에 의해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

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내세워 이사회 의결을 통한 시행이 유효하다고 내세우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규정을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취업규칙 불이행 변경에 대해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할 사례는 드물다”고 덧붙였다. <박용주 기자>

서남대 의과대 살리기

정운천, 최전선에 서나?

도내 의료계 “정치력 시험대 작용 여지 커”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서남대 의대 살리기 최전선에 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남대 의과대 폐교 철회를 둘러싸고 지역민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들고 일어난 가운데 정 의원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명지병원 정상화계획서 보완자료 미제출, 서남대 임시이사회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 제공모 시행방안 논의. <관련기사 3면>

현, 서남대 모습이다.

여기에 교육부가 서남대 의대 폐교를 추진하려한다는 좋지 않은 시각도 팽배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순천에서 재선에 성공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전남지역 의대 설립에 관심을 보여 불안하다.

게다가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목포에 의대 설립 소신을 밝힌바 있어 산 넘어 산이다.

이처럼 서남대 의대 폐교에 따른 타 지역 정치권이 의대 영입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최대한 논의를 서둘러 결론지어야 될 입장이다.

그러나 이정현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정운천 의원이 있어 다소 안심된다. 정 의원의 생각이다.

아무래도 전북에도 여당 의원이 있다는게 서남대 의대를 사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의미다.

게다가 정 의원은 탄소법 통과에도 앞장섰다.

탄소법은 여야 정쟁 속에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계류될 뻔 했지만 정 의원이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정진석 원내대표 등을 만나 당내 설득에 나섰고 19대 국회 마지막날 극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일조했다.

이번 서남대 의대 폐교 철회 역시 정 의원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나올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도내 의료계 관계자는 “서남대 의대 문제는 워낙 미묘한 사안이어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 의원으로서는 탄소법에 이어 서남대 의대 폐교 철회가 정치적 시험대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우리가락, 영호남충청과 더불어’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현장공연 성료

우리 전통 농경문화인 들소리를 재현하고, 전국 각지의 전래 농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영·호남·충청이 함께 하는 제14회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현장공연’이 12일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야외광장에서 진행되어 농경문화의 진수를 보여줬다.

순창농요금과들소리보존회(회장 류연식)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군의회, 순창문화원, 순창국악원, 금과연민회 등이 후원한 이번 현장공연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요 전수자들과 관계자, 관람객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잊혀져 가는 전통 농경문화를 전승·발전시키고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32호인 금과들소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이번 공연에는 문화교류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84호 경남 고성농요와 경북 무형문화재 제13호 상주민요, 제27호 구미발강이들소리, 충남 무형문화재 제20호 흥성결성농요 및 김유정 명창의 판소리 공연과 금과이마농악, 사물놀이,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발표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영·호남·충청의 전통 소리 및 예술문화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2016년 4월26일 개관

남원시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빼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추천년 노치마을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www.eco-edu.or.kr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1 /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5760